8-4-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시편 2:1-12
말씀제목: **헛된 일만 꾀하는 현 세상과 하늘에서 웃으시며 조롱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는 약 3,000 년 전에 다윗왕을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다윗이 예언한지 천 년이 지났을 때 이루어진 것을 보고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풀려난 후에 동료들에게 가서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에게 말한 바를 모두 이야기하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다 같이 하나님께 음성을 높여 아뢰기를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들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일어서고 또 치리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라고 하셨나이다. 과연 주께서 기름부으신 주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를 대적하여 헤롯과 폰티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였으니 이는 주의 손과 주의 계획대로 이루기로 예정된 온갖 일을 행하려 함이니이다."(행 4:23-28)

여기서 이방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이고,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모두 하나가 되어 똑같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해봤자 소용도 없는 일을 꾀하는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류가 행한 "헛된 일 중의 으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잡혔던 사도들이 풀려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인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것이 바로 헛된 일을 꾀하는 것"입니다.그들은 종교지도자들과 함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 죽이면 이 땅을 차지할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게 헛된 일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죽임당하시는 것을 도와준 셈이 된 것을 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마귀에게 넘어간 백성들과 이방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도와준 것입니다. 마귀가 행한 "헛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교회를 방해하고, 또 교회에서 사람들을 내보내고 하는 것이 마귀에게는 좋을 것 같지만, 마귀는 헛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귀와 그에게 속은 사람들은 헛 똑똑한 바보 병신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을 때 그들은 환호했겠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마귀는 "꽥" 소리를 내고 정신이 혼미했을 것입니다. 그게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모습인 것입니다.

마귀는 유대인을 통해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했지만 결박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결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들은 결박을 당해서 끝없이 깊은 구렁 속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에 앉아계신 하나님께서 웃으실 것이요"라 말씀한 것입니다.

하늘들에서 웃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일이 무엇일까요. 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롱하셨습니까? 옛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한 왕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휴거된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데리고 오시겠다는 말씀 한 마디에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다시 오셔서 그들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시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그의 예언 가운데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화내실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대 환란"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민족들에게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대환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시 2:6)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네가 죽인 왕을 내가 세웠도다."하시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칙령입니다. 칙령은 아무도 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귀에게 잠깐 빼앗겼던 자신이 창조하셨던 땅을 다시 찾으시고 이 땅에서 통치하시러 오실 때 그분을 대적하던 무리들을 철장으로 깨뜨리며 토기장이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실 것입니다.

7 절에 "내가 너를 낳았도다."하신 것은 , 성육신 하신 주님이 진정한 왕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와 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는 모습이 아니라 "눈은 불꽃 같고 머리털은 하얀 양모 같고 얼굴은 해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우리들과 함께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야 그 뜻을 이루십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믿으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비가 올 것을 끝까지 믿고 120 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실 것을 수십 년간 믿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치 않고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시는 그 날까지 세상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을 비웃으며 자행하는 온갖 헛된 일들을 보면서 현 세상을 향해 주님처럼 웃으며 조롱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으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분의 신부로 예비되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